

탐방 서초반야회



법조인 복지모임인 서초반야회는 매월 셋째 수요일 대성사에서 불심도문스님의 지도로 경전강독 및 참선정진 법회를 열고 있다.

“부처님법 의지 ‘파사현정’ 실천”

판검사등 70여명 활동 참선통해 ‘곧은마음’

부처님의 정법을 사회법의 판단과 적용을 통해 소리없이 회향하고 있는 법조인법회가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판사 40명, 검사 3명, 법원직원 15명, 변호사 18명, 민사조정위원 3명 등 총 79명의 법조인들로 구성된 서초반야회(회장 권광중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초반야회는 참선과 경전강독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다져 생활속에서 자비평등의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실천하는 실행모임이다.

다. 즉 ‘이세간(離世間)’에는 부처님의 법을 들은 중생이 세간에 있어 속세에 물들지 않는 게 마치 ‘연꽃이 더러운 물에 섞이지 않는 것’(如蓮華不著水)과 같다는 뜻이 있다. 어떤 유혹과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사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한 부동심(不動心)과 자비·평등의 마음을 다잡는 것은 물론 공국의 목표인 성찰의 인연을 쌓는 모임을 것이다. 서초반야회는 지난 95년2월 손수일판사가 도문스님과 인연이 되어 법조인법회 창립을 준비해 김진태검사와 박홍우 박기동 김우관사가 도문스님을 친견, 4월에 첫 법회를 가졌다. 하지만 실제 연원은 훨씬 오래다. 서울대 법과대학 불교모임인 법불회가 법회성립의 시초이기 때문. 창립이래 연 2회 경주 천통사, 수원 용주사, 남양주시 봉선사 등지에서 순례 및 수련·수계법회 등도 펼쳐온 서초반야회는 96년 4월 사법연수원 김희욱 이인재교수의 지도하에 서양 전 조계종 종정스님을 증명으로 다르마법우회를 창립시키기도 했다.

김재경 기자

PC 불교동호회 깊어가는 신심

사이버법당 초월 사찰 정진법회 잇달아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등 PC통신 불교동호회(이하 불동)의 신행공간이 사이버법당에서 사찰로 옮겨지고 있다. 매 분기별 전국모임과 격·월별 소모임 활동으로 신행을 쌓아 온 PC통신 불동 회원들은 사찰법회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 “3천배 참회” “1080배 정진”

해의 짜든 심신을 정화할 계획. 이에앞서 하북동은 22~23일 1박2일간 서울 법원사에서 유니텔불교동호회(대표시삼 김희정)와 공동으로 ‘1080배 정진법회’도 가졌다.

하이텔 ‘1만배’ 천리안 ‘철야사경’ 눈길 4대통신 ‘불동회원’ 연합법회 추진도

‘철야 사경정진’ 등 주제별 법회를 주관하면서 ‘머리에 서 온 몸으로’ 불교를 체험하기 시작했다. 지난 8. 9일 ‘3천~1만배 참회법회’로 눈길을 끈 하이텔불교동호회(대표시삼 김주서)는 29~30일 공주 영평사에서 송년모임을 갖는다. 정광스님의 법문과 참선, 조석예불 및 108참회, 동화사 갑사 성곡사 마곡사 순례로 한

천리안불교동호회(대표시삼 박수호)도 29~30일 무박2일로 대구구도회 법당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전국모임을 갖는다. 첫날 대구구도회 법당에서 저녁예불 및 토론회를 가진후 ‘부처님 그리기와 사경정진’을 철야로 진행한다. 다음날 새벽예불 후에는 대구 갖바위와 동화사, 군위 제2석굴암 등을 참배하고 밤심의 기회를 갖는다.

나우누리부처님마을(대표시삼 권상목)은 23일 오후 연화사에서 서울경기도모임을 갖고 각 통신 불동의 연합법회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교환,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와관련 천불동 박수호시삼은 “이제 각 통신 불동의 신행이 কে도에 올라선 만큼 앞으로는 사찰연합법회 등을 통해 네티즌 불자들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비정신으로 대민봉사 앞장

경기도청 불자회 창립... 회장에 조한유씨



조한유 회장

경기도 도청 소속 불자공무원들의 신행모임인 경기도청불자회가 18일 창립했다.

오후 6시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법회에서 주회 고문으로 추대된 용주사 주지 정각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을 계기로 올바른 공직자의 길을 가고, 삶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열심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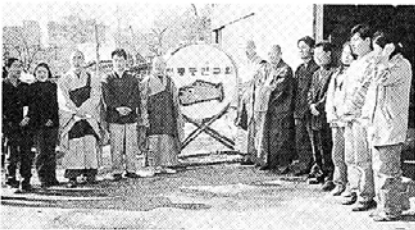
경기도청불자회는 법회에 이어 창립총회를 갖고 회장에 국제협력 실 조한유(49)실장을 선출한 것을 비롯 5명의 임원진을 선출하고 회

칙을 통과시켰다.

이어 조한유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관내 1백여개의 사찰을 두루 순례하는 등 산사 체계를 강화해 내실있는 신행모임을 꾸리겠다”면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민서비스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1백30여명의 불자회 회원들은 앞으로 매주 정기법회를 개최하고 한달에 한번 사찰순례를 통해 불심을 다지는 한편 자비정신에 바탕을 둔 대민봉사에 적극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회회는 고문에 정각 모음스님을 비롯 조계종 원로의원 정무, 종회의원 정대, 봉선사주지 말운스님과 지도법사에 용화사 주지 성주, 봉녕사 도감 진상, 용주사 총무 신경, 신흥사 주지 성일스님 등을 위촉해 수행을 점검받기로 했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봉녕승가대학 학장 묘연스님,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스님, 철장사 주지 도광스님과 경기도의회 흥성호의장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여해 불자회 창립을 축하했다.



전통동연구회 현판식

조계종 봉축기회단 전통동연구회(회장 백창호)가 20일 11시 강남 봉은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무상(봉은사 주지), 성관(조계종 호법부장), 지현(조계종 총무국장)스님을 비롯 전통동연구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전통동연구회는 내년 5월까지 전통동놀이문화 시연지로 알려진 봉은사에서 △전통동 재현 △놀이문화 재현 △장엄등 제작 등 봉축행사를 준비한다.

대구경북지회 결성 동산반야회



조계종 동산반야회(이사장 김재일) 대구경북지회 결성법회가 16일 대구 거사법정법회관에서 봉행됐다. 대구경북지회는 올봄 결성된 제주지회와 이어 2번째 지회, 초대 지회장은 박정진 거사가 선임됐다.

음대비양로원을 방문, 난방용 연료를 전달했다. (02)705-5151

하노로선정회 9차 포럼

하노로포럼선정회(상임공동대표 고준환)와 창원대사회화연구소(소장 최용기)는 21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신세계홀에서 ‘민족통합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대동령후보 초청강연회 및 제9차 포럼을 열었다. 조순 한나라당 총재와 이인제 국민신당 대통령후보의 강연에 이어 하상식 창원대교수, 이상만 중안대 민족발전연구소장, 손기용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남인순 효성가톨릭대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실) 초청대법회를 거행한다. 진제스님은 경허·해월·운봉·함곡선사로 이어지는 임제정맥(臨濟正脈)을 계승한 우리 시대의 선지식. (0522)72-1033

동의대 홍선스님 초청강연

동의대교수불자회(회장 송무효 토목공학교수)는 19일 오후3시 자연대학 세미나실에서 ‘현대사회와 불교윤리’를 주제로 홍선스님(중앙승가대교수) 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BBS통신원 양로원 위문

BBS교통통신원불자회(회장 전경남) 회원 40명은 21일 오전 10시 관

우리 모임에선

교불련 불국사 동계수련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류종민)는 28~30일 2박3일간 경주 불국사로 동계 수련회를 떠난다. 28일 ‘불교문화재와 환경’ 주제 추계학술세미나, 29일 예불·참선 및 문화유적순례, 30일 석굴암 해맞이 등의 일정이 20일 일반인들의 참여도 가능. (02)720-6618

skb 불자회 통도사 순례

서울방송불자회(회장 최인국 제작영상부국장)는 22~23일 1박2일간 양산 통도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12월에도 신흥사 낙산사 백담사 등

설악산 주변 명찰을 순례할 계획.

청정회 창립4돌 법회

청정회(회장 강희병)는 12월 4일 부산 청정회 본원에서 창립 4주년 기념법회를 갖는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지회 회원 1백50명은 지도법사 강진법사들을 모시고 한 해 신행을 점검하면서 한 단계 높은 정진을 다짐할 계획. (02)878-1843

울산경제정실천불교시민연합회

울산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회(회장 류관희)는 12월 4일 오후7시 정토사 대웅전에서 창립2돌 기념 진제스님(동화사·해운정사 금모선원 조

Advertisement for '보광사부설 보광유치원' (Bogwangsa Busseul Bogwang Yuchiwon). It features a large title, a description of the school's focus on early education, a list of activities, and contact information. The text is arranged in a structured layout with various sections and bullet poi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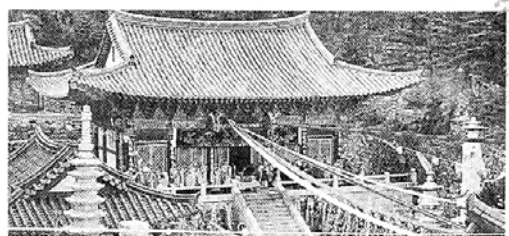
대한법회종 해수증정 추대식

대한법회종 해수스님 제5대 종정 추대식이 20일 케이탈호텔 신라룸에서 열렸다. 해수스님은 추대법어에서 “모든 종교가 화합해 더욱 발전하는 종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취임식에는 대호(대한법회종 총무원장) 대산(삼론종 종정) 인국(대고종 총무원장) 김광대(한국법회종 총무원장) 무학(일부선교종) 지성(천태종 총무원장) 권익현(한나라당 고문) 최정길(대한법회종 전국신도회장) 등 8백여명이 참석했다.



도선사 청담대종사 26주기 추모제

삼각산 도선사(주지 동광)는 15일 오전 11시 호국화엄원에서 ‘청담 대종사 열반 26주기 추모대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추모법어를 통해 “산 속에 은거하는 소극적인 수행자가 아니라 세상속에서 부처님의 정경(正境)을 펴기를 서원한 행동하는 수행자였다”고 스님을 추모했다. 이날 법회에는 통도사 부방장 청하스님, 문수사 해정스님, 정각회장 서석재 의원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월해사 개산 및 백고좌법회

대한생활불교회(이사장 김덕수)는 19일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소재 월해사에서 강원교구본사 ‘개산 및 백고좌법회’를 봉행했다. 법일 월해사 주지, 재곤 선운사 주지스님을 비롯 동문성 속초시장, 최중호 월해사 신도회장등 사부대중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덕수 생활불교회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월해사를 모든 불자의 기도처로, 수행도량의 국제선원으로 가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MBC불교연구회 창립법회

부산MBC불교연구회(회장 주홍식)는 16일 범어사 유희정사에서 성우 부산불교연합회 회장스님,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 회장등 내빈과 회원 및 가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가졌다. 이날 창립행사에서 성우스님은 법문을 통해 “법법의 탐구를 위한 이 창립이 올바른 언론창달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